**履歴書**

写真を貼る位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氏名** | 朴董宰 | | 英語 | | | Park Dongjae | | | | | **性別** | 男性 |
| **生年月日** | 1997 / 04 / 22 | | | **メールアドレス** | | | | | aqsw3929@naver.com | | | |
| **携帯番号** | 010-8505-7403 | | | **電話番号** | | | | | 053-353-7393 | | | |
| **★韓国にお住まいの方は＋82などの記号は不要です。韓国以外海外の方だけお願いいたします。** | | | | | | | | | | | | |
| **現住所**  **(英文にて記入)** | 103-1103, 50-21, Chimsannam-ro 7-gil, Buk-gu, Daegu,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
| **卒業高校名** | 聖光高校 | | | **高校卒業年度** | | | | | 2016年　2月 | | | |
| **卒業大学名** | 永進専門大学 | | | **学部 or 単科大学** | | | | |  | | | |
| **学科 or 専攻** | | | | | コンピューター情報系列 | | | |
| **大学入学年度** | 2016年　3月 | | | **大学編入情報**  **(該当者のみ)** | | | | 編入前の大学名： | | | | |
| 入学年度： | | | | |
| **大学卒業年度** | 2023年　2月 | | | | | | 卒業見込み | | | | | |
| **大学成績** | 3.89 / 4.5 | | | | | | | | | | | |
| **兵役(男性のみ)** | ☑ 済　☐ 免除　☐ 特例　☐ 対象外(海外籍・永住者など) | | | | | | | | | | | |
| **最終所属部隊**  **(師団級まで記入)** | 陸軍・30師団 | | | **兵役期間** | 2016年　12月～2020年　3月 | | | | | | | |
| **学業以外の活動** | 2016年6月～2016年7月 - 新築マンションの掃除アルバイト  2016年7月～2016年11月 - 中華料理店でアルバイト(サービング及びカウンター)  2016年12月～2018年9月 - 兵役(兵士)  2018年9月～2020年3月 - 兵役(下士官)  2020年5月～2021年1月 - チキン専門店でバイト(調理、包装、配達、客応対、注文受け付) | | | | | | | | | | | |
| **その他資格** | 1. 運転免許1種普通  2. ITQ Excel (A)  3. テクォンドー1段 | | | | | | | | | | | |
| **日本語能力** | **JPT** | | | 890点 / ☐ 未受検 | | | | | | | | |
| **JLPT** | | | N1 級 | | | | | | 162点 / ☐ 未受検 | | |
| ☑ 日常会話　☐ ビジネス会話　☐ 母国語レベル　☐ 母国語(日本人) | | | | | | | | | | | |
| **英語能力** | **TOEIC** | | | 710点 / ☐ 未受検 | | | | | | | | |
| **試験名**  (例：TOEIC SPEAKING or OPIC など) | | | 級　/　　　　点 / ☐ 未受検 | | | | | | | | |
| ☐ 日常会話　☐ ビジネス会話　☐ 母国語レベル　☐ 母国語(欧州出身) | | | | | | | | | | | |
| **その他語学力**  **(英語・韓国語以外)** | **語学名** | 語 | | | | | | | | | | |
| **試験名** |  | | | | | **点数** | | | 点 | | |
| ☐ 日常会話　☐ ビジネス会話　☐ 母国語レベル　☐ 母国語(外国生まれ) | | | | | | | | | | | |

※チェックボックスにチェックをする際は「☐」と「☑」をコピーして入力してください。

※赤色の文字は、形式と内容に合わせて「黒色に」書き直してください。

(※はすべて削除してから提出お願いたします。）

**習得技術情報**

1. 平価の基準

|  |  |  |  |
| --- | --- | --- | --- |
| **基準** | **内容** | **基準** | **内容** |
| 最上 | 専門的な知識があり、開発経験が豊富 | 上 | 専門的な知識があり、問題なく使いこなすことができる |
| 中 | 開発に必要な基本的な知識があり、使用経験もある | 下 | 基本的な知識があるが、開発経験はない |

2. 習得技術情報（「 最上・上・中・下」の標識をつけてくださ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S | UNIX  Solaris | UNIX  HP | UNIX  AIX | UNIX  その他 | Linux | Win2000  WinNT | Win98  Win95 | MAC-OS | 汎用機 | その他 |
|  |  |  |  | 下 |  |  |  |  |  |
| 言語 | Unity | C | C++ | C# | SQL  PL/SQL | Objective-C | Swift | Ruby | Python | PHP |
|  | 下 | 下 |  |  |  |  |  | 下 | 下 |
| HTML | CSS | JAVA | Java  Script | Perl | ASP | JSP | その他 | 開発  ツール | 開発  ツール |
| 中 | 中 | 中 | 中 |  |  |  |  |  |  |
| DB | Oracle | MySQL | Mongo  DB | DB2 | lnfomix | Object  Store | SQL  Server | Access | Sybase | その他 |
| 下 | 中 |  |  |  |  |  |  |  |  |
| サーバ | VMWARE  仮想環境 | iplanet | Web  Logic | Web  Sphere | OWAS | Tomcat | lls | その他 | その他 | 開発  ツール |
|  |  |  |  |  |  |  |  |  |  |
| Framework | | Laravel | Arduino | VueJS | nodeJS | AngularJS | Bootstrap | Spring | Express | その他 |
| 下 |  | 中 | 中 |  | 中 |  | 中 |  |
| Library | | JQuery | ReactJS | その他 | その他 | その他 | その他 | その他 | その他 | その他 |
|  |  |  |  |  |  |  |  |  |
| Network | | CCNA | CCNP | CCIE | LPIC | OCP | その他 | その他 | その他 | その他 |
|  |  |  |  |  |  |  |  |  |

**エントリーシート**

**設問1．**

|  |
| --- |
| **IT業界に志願する理由 （文字数制限なし）** |
| **IT업계에서 일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저의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엑셀 자격증을 딴 것을 계기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있는 21세기의 현재 모습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없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서 제가 흥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인일 때 근무실에 상황근무용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부대 병사들의 인사정보가 담긴 엑셀 차트가 있었는데 차트를 조금 조작하여 계급별로 색깔을 달리하고 군생활 진척도를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큰 변화를 준것은 아니었지만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고 같은 내용이더라도 병사들의 관심도가 크게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작은 컴퓨터 작업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했더니 저의 IT업계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졌었습니다. 앞으로 IT업계에 종사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더 많은것을 배우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싶기에 지원합니다.** |

**設問2．**

|  |
| --- |
| **日本就職の動機 （文字数制限なし）** |
| **일본에 취직하여 새로운 자신을 찾고 식견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입대 전까지의 저의 삶은 매우 단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초,중,고등학교를 나와 당연하다는 듯이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대구에서 태어나 다른곳에 여행조차 거의 가보지 않은 채 그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할 당시 일본취업반 입반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절했었습니다. 원래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에 호의를 갖고 있었고 가끔은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막상 기회가 오니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살 후반에 입대를 하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총 3년 3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였는데 그동안 느낀것 중 하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록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비록 저보다 후임일 지라도 존경심이 들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 그 중에서도 대구라는 도시안에서만 지내왔던 저는 비교적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저의 꿈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하고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일본취업반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IT업계가 많이 발전해 있으며 인구도 많은 만큼 웹서비스 차원에서 한국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일본 취직은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난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만 했던 저였으나 더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며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고 그 시작으로서 일본취직은 저에게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設問3．**

|  |
| --- |
| **ITエンジニアとして、日本でどのように成長していきたいか（文字数制限なし）** |
| **프론트엔드 전문가로서 성장하고싶습니다. 한 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그저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하여 웹페이지에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을 넣거나 꾸미는 정도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론트엔드가 사람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서버나 백엔드 프로그래밍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보잘것 없이 보이는 서비스를 선뜻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상업적으로나 편의성면으로나 프론트엔드는 백엔드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컴포넌트 들이 시각적으로 사용자가 인식하기 편하게 배치해야 하며 성능과 배터리 소모를 고려한 API를 활용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기에서 호환되도록 반응형으로 페이지를 구성해야하며 XSS와 CSRF공격에도 대비해야합니다. 사용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한다는 점에서 프론트엔드는 어쩌면 가장 큰 중압감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서비스를 사용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만한 멋진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용자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써 일본에서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

**設問4．**

|  |
| --- |
| **リーダシップを発揮し、組織やチームに影響を与えた経験（文字数制限なし）** |
| **저는 군대에 몸담고 있던 기간 중 2년 7개월을 누군가의 분대장 혹은 반장으로써 그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 분대장이라는 직위를 받았을 땐 많이 미숙하여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제게 축척되어 누군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분대장이 되기 전엔 사실 아는것도 별로 없고 항상 선임들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막상 제가 분대장이 되니 그 무엇하나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없어 직위의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연습하여 어느정도 주특기가 익숙해질 때 쯤 저는 첫 후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는 후임에게 저와 같은 일을 겪게하고 싶지 않았기에 작업을 같이 할 때면 항상 해야하는 일을 지시할 때 그 원리와 이유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업의 효율은 훨씬 증가하고 저에 대한 후임들의 의존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후임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작업의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되는걸 보고 제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써 누군가를 이끌어 나갈 땐 작업의 효율 뿐만 아니라 팀원들 각각의 성향을 파악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목표를 주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후임이던 시절에는 그 성취감이 부족했던 탓인지 제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이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상사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뒤쳐지는 병사일 수록 함께 작업하며 쉬운 일부터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병사들도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며 분대 내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후임들은 제가 어떤 일을 지시해도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었고 저희는 어떠한 힘든 작업 속에서도 아무도 불평 불만 없이 땀흘리면서도 항상 웃으며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